

나주 미래산단 비리, 시장 연루?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증권회사 직원 등 2명 사전 영장

감사원이 21일 나주 미래일반산업 단지(미래산단) 조성과정에서 잘못된 협약으로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임성훈 나주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일 시장이 미래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가 아닌 외부 자금을 차입하면서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등 부실하게 추진한 책임을 물어 일 시장과 다른 공무원 1명, 업자 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사업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끌어

오면서 지방재 이자율(4~5%)보다 높은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실제 6.5%의 이자율을 적용해 차액인 3.5% 포인트에 해당하는 77억원을 자문회사에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나주시가 시행사를 위해 1685억원을 보증한 것도 사실상 나주시가 빌린 것과 다를없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시행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시가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수익까지 보장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막연한 협약 외에 정식 계약이나 회의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르면 다음주 일 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미래산단에 대출을 해주면서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B증권사 임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미래산단 조성과 관련해 업체 측으로부터 29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모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과 돈을 전달한 지인을 구속한 바 있다.

있다.

검찰은 같은 날 나주 신도산단과 관련 42억원대의 호텔 공사대금을 내지도 않고 완납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관광개발 진흥기금 15억원을 신청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또 다른 업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업자는 다른 정상적인 공문서를 날인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끼워넣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무원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미래산단 조성과 관련해 업체 측으로부터 294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모 전 나주시 투자유치팀장과 돈을 전달한 지인을 구속한 바 있다.

/윤현기자 chadol@kwangju.co.kr



교복 나눔 가족 장터

21일 광주 남구청 신학기 캠퍼 가족장터가 열려 구민들이 교복을 구매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고생 교복 1점당 1000원~3000원에 판매해 수익금은 남구 장학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80억 횡령 직원 항소에 여수공무원들 분노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 노조, 법원에 엄벌 촉구

여수시 공무원들이 80억대 공금횡령 사건 주범인 기능직 8급 김모(47)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서명을 2심 재판장인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별일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는 21일 “최근 김씨가 1심 재판에서 11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것과 관련여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6일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서명을 2심 재판장인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별일 예정이다.

여수시 이정남 지부장은 “지방 소도시에서 세계박람회를 훌륭하게 치루고자 희대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우

리 시 공무원과 시민들까지 고개를 뜯을 정도로 부끄럽게 됐다”며 “뉘우침이 전혀 없는 김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길이라 생각해 서명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3년여간 80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1심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은 여수시 전 공무원 김씨 등은 지난 15일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덧붙였다.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겠다”고

광주지검, 임성훈 시장 내주 소환

법원에 엄벌 촉구

수를 비리도시로 먹칠해 놓고도 반성이 전혀 없는 김씨에 분노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